

운활소식

SK (주)

제4세대 우울증 치료제 존슨앤존슨에 판매

SK(주) 신약개발사업부에서 독자개발한 제4세대 우울증 치료제 YKP10A를 다국적 제약기업인 존슨앤존슨그룹의 안센 리서치 파운데이션사에 기술판매키로 하고 미국 현지에서 기술판매계약을 체결했다.

SK(주)가 개발한 우울증치료제 YKP10A는 전 임상단계의 동물실험에서 우울증치료제로서의 약효가 입증되었고, 이어 국내 최초로 미국 FDA의 임상시험 허가(IND Approval)를 받았으며 미국 현지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기존 약물에 비해 약물의 안정성 및 약효가 탁월하게 개선된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SK(주)는 계약금 및 개발 단계별 기술수출료, 상품화 성공시 물질특허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게 된다. SK(주)와 존슨앤존슨그룹과의 기술제휴는 간질치료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울증은 인구의 약 15%가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질병으로서 치료제의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백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회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매년 10% 이상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다.

SK(주)는 미국 뉴저지의 현지 자회사인 SK 신약개발사업부를 주축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미국 현지의 의약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치료제, 항암제 등 새로운 분야의 약물개발도 진행중이다.

고성능 폴리프로필렌 개발 성공

SK(주)는 3년여의 연구 끝에 콜라, 사이다, 쥬스 등 청량음료용 PET 보틀캡의 원료인 고성능 폴리프로필렌의 개발에 성공 세계 최대 PET 플라스틱 보틀캡 생산업체인 “ALCOA CSI”의 아시아지역 3개국(한국, 중국, 필리핀) 투자사와 지난 12월 6일과 1월 12일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SK(주)는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는 필립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로 인해 캡 가공업체(ALCOA CSI 등), 청량음료회사(펩시, 코카콜라, 롯데칠성, 해태음료 등)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ALCOA CSI와 이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계약으로 SK(주)는 ALCOA의 전세계 25개 공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 개발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LG-Caltex정유(주)

운활유공장 VDF 준공식

LG-Caltex정유(주)는 2000년 12월 20일 운활유공장 VDF(VII Dissolving Facility) 준공식을 가졌다. 2000년 6월 인천 원창동 운활유공장 부지내에 총16억원의 투자비를 투입하여 이날 준공식을 가진 VDF는 자동차용 다급점도 엔진오일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한 종류인 VII(Viscosity Index Improver : 점도지수향상제)를 용해하여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VDF의 준공으로 연간

윤활소식

2300여톤의 점도지수향상제를 자체 조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윤활유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제조업 대상 수상

LG-Caltex정유(주)는 지난 12월 19일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제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총 117개 참가업체 가운데 생산, 물류를 포함한 성공적인 ERP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물품주문과 거래내용의 실시간 확인 등의 수준 높은 정보화 노력을 인정 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업정보화 수준평가란 기업정보화 센터에서 한국기업의 정보화 특성을 고려해 독자개발한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시스템(EIII : Evaluation Indices of Industrial Information)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실태를 정보화 목표, 정보화 설비, 정보화 지원, 정보화 서비스 및 이용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계량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전체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이상적 정보화 방향을 제시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흡음 파이프용 PP수지 국내최초 개발

LG칼텍스정유(주)는 기존 PVC파이프와 주철파이프에 비해 방음효과가 탁월하고 가격이 저렴한 흡음 파이프용 폴리프로필렌(PP) 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흡음 파이프용 폴리프로필렌(PP) 수지란 LG칼텍스정유(주)가 95년부터 3년 동안 3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폴리프로필렌 수지에 광물질 소재인 필러(Filler)를 첨가하여 흡음 및 방음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로서 주택이나 아파트의 욕조, 썩크대, 화장실 등의 세대 배관이나 입상관 및 지하 횡주관 등 건축용 오배수관의 성형 재료에 적합하다.

LG칼텍스정유(주)는 99년3월 국내 특허등록을 마치고, 플라스틱 파이프 전문 생산업체인 (주)이노텍과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월 초부터 흡음 폴리프로필렌 파이프를 생산하고, 판매는 파이프 전문 판매업체인 (주)동양플라스틱의 기존 영업망을 통해 시판한다.

그 동안 국내 건축용 파이프의 재료는 PVC수지와 주철이 6대4의 비율로 사용되어 왔으며, PVC 수지는 흡음성이 불량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리섬유 등을 방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증가된 시공비에 비해 소음 차단 효과가 미미하며, 주철관은 시공성 및 내구성이 낮고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흡음 PP 파이프는 흡음효과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주철파이프의 70% 선으로 경제적이며, 또한 비슷한 재질과 구조의 파이프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기관인 독일의 에센(ESSEN) 방진방열 연구소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흡음 PP 파이프는 소음이 30데시벨(dB) 이하로 PVC 파이프(60dB)의 50%, 주철 파이프(40dB)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가 주철관 대비 4배가 가볍기 때문에

유행소식

운반이 쉽고, 소켓 피팅을 사용함으로써 보조장비 없이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내충격성, 내구성, 내열성 및 부식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며, 외관이 아름다워 노출 배관시 별도의 페인팅이나 후 처리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PVC수지는 재활용이 어려운데 비해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한편 LG칼텍스정유(주)는 97년에 생수용 폴리프로필렌병을, 99년에는 표면처리 작업없이 도장이 가능한 도장성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여 기존의 PET나 PC/ABS 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S-Oil(주)

**“고점도 증질유 분해-탈황 복합시설”
건설 착수**

S-Oil(주)는 200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울산시 온산공장에 총 투자규모 3천 5백억원의 대규모 “고점도 병커C유 분해-탈황 복합시설 (Hyvahl Complex)” 을 건설한다.

지난달 초 착공한 “고점도 병커C유 분해-탈황 복합시설”은 세계 최초로 값싼 초고점도 고유황 병커C유를 원료로 투입하여 고가의 초저유황 병커C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석유정제 고도화 시설이다. 하루 5만 2천 배럴의 고유황 병커C유를 처리하는 이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저유황 원유 수입을 대체하여 15억불(15년간)의 외화절

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점도 병커C유 분해-탈황 복합시설”은 경제성과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첨단성과 사우디 원유의 특징이 결합된 첨단 공정으로 S-Oil(주)는 세계적으로 다른 정유사들이 가질수 없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는 일종의 “기술지식 경영의 산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정유사의 부가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원유처리 대비 고도화 비율이 30%로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인 S-Oil(주)는 고도화 비율을 가일층 높게 되어 수익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고배당 정책 또한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il(주)는 이미 가동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병커C유 분해-탈황(1일 19만 5천 배럴 처리)의 운전 경험으로 축적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동 후 최단시간 내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셀석유(주)

무재해 200만 시간 달성

한국셀석유(주)는 무재해 200만 시간을 달성하여, 지난 1월 5일 셀 본사로부터 안정상(SAFETY AWARD)을 수상하였다.

한국셀석유(주)는 본사, 저유소, 및 유행유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과 용역 근로자를 포함한 전 종업원이 200만 시간 동안 무재해를 기록해

윤활소식

이 상을 받게 되었다.

한국쉘석유(주)의 무재해 200만 시간 달성은 쉘(Shell)의 철저하고 까다로운 “안전관리기준” 하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 쉘석유(주)의 경우 근로자가 재해 요인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만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를 “재해 발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4일 이내의 입원가료 경우까지 무재해로 간주하는 관행을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엄격한 것이다.

한편 한국쉘석유(주)는 안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전 직원들에게 안전유지를 위해 적정한 운전 및 근무시간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으며

“Near Miss(앗차 사고) 신고 장려제”를 도입 발생할 뻔한 사고나 사고발생 가능요소를 미리 관찰하여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엘로카드제”를 통해 안전관리자와 부서 책임자가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경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사고의 사전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쉘(Shell)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기법과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한국쉘석유(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달 회람되는 국내외 사건 사고 관련 안전, 보건 소식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계몽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쉘석유(주)는 무재해 200만 시간 달성뿐만 아니라 내년 5월경 “무재해 목표 5배” 달성도 바라보고 있어 “안전한 사업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화학(주)

QS 9000 인증 획득

이수화학(주)는 2000년 12월 6일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유 제품에 대하여 QS 9000 인증을 획득하고 12월 12일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날 행사는 윤신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한국품질재단의 김우현 소장 등 약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윤신박 사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동종 업계 최초로 QS 900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QS 9000이란 미국 자동차업계의 BIG3인 포드, 크라이슬러, GM과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ISO 9001을 근간으로 개발한 품질시스템으로서 자동차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품질시스템이다. 최근에는 국내 및 미국의 BIG3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시한을 정해놓고 QS 9000 인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거래의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수화학(주)는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약 1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QS 9000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윤활유 부문의 사업활성화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